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박차

전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구축사업 추진

전북도가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을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도는 '전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2020~2024)'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구축사업을 신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내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중간 지원조직 설립을 희망하는 5개 시·군(군산, 남원, 진안, 무주, 고창)을 공모 선정해 총사업비 8억7,700만 원(2020~2021년)을 운영 인건비와 사업

비 등에 지원하고 있다.

중간 지원조직은 시·군 여건에 따라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센터 신설, 기존 공동체조직의 전담팀 신설, 사회적경제 소관부서 내 전담 직원 배치 등의 형태로 구축됐다.

이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컨설팅,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판로지원, ▲홍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민·관, 민·민을 연계하는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군산시는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지원(42개사),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 통합 제공,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교육 및 컨설팅

(48회), 리빙랩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시는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와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를 통해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행안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되며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

고창군은 사회적경제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과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고, 진안·무주군도 관내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정보제공 및 컨설팅 등에 힘쓰고 있다.

이처럼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으로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조력자로서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리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3년(2019~2021) 연속 우수자치단체 선정(고용부 주관), 11년 연속(2011~2021) 우수 마을기업 선정(행안부 주관)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속 발굴해 현재 1,861개사가 운영되는 양적 성장을 이뤘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시·군 중간 지원조직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활력 제고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양돈농가 신기술 축산장비 보급

도,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 농가 36개소서 시범 사용

전북도가 스마트 축산농가 개선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선다.

도는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오는 12월 말까지 양돈농가 36개소에서 시범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사용되는 제품은 이 전주시 소재 (주)일투베이션에서 만든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다.

3D 카메라를 활용한 돼지 체중 측정기로, 기존의 스펀 저울로 일일이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CT 장비를 통해 접촉하지 않고 체중 측정이 가능하다.

도는 지난 6월 조달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약 3억 원 상당의 비접촉식 돼지 체중 측정기를 무상으로 받은 바 있다.

도는 이들 제품을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양돈농가 중 36개소를 선발해 시범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혁신제품의 정확도, 측정 시간, 노동력 감소 등을 평가한 후, 최종 양돈농가에 소유권을 이전 및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정책관은 "도내 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 등 기업 성장을 돕고, 양돈농가에 신기술을 축산장비에 보급함으로써 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舉兩得)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등 여러 분야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김장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에 명예도민증 수여

전북도, 이호인 전주대 전 총장·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에게도 수여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김장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전북도 명예도민이 됐다.

전북도는 23일 전북도청에서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김장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에게 전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문성인 검사장은 올해 6월 취임 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장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올해 4월 취임 후, 국가정책을 지역에 전파하고,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등 지역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송하진 지사는 "문성인 검사장과 김장희 인제

개발원장은 지자체와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우리 지역 발전과 문제 해결에 애쓰고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 전북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전북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달라라는 의미에서 명예도민증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 외에도 도내 최초 평생학습 단과대학 설립 등 대학자원의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호인 전주대 전 총장과 도내 중소기업인의 경제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에게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전북도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로서 그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문성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김장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에게 전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태풍 북상 대비 비상근무 실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부서·시·군, 피해상황 지속 조사

제12호 태풍 오미스가 23일 밤 남해안에 상륙, 방부터 전북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람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다가 24일 3시경 대구 부근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기상 특보 상황에 따라 22일 16시부터 상황판단회의 실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13개 협업부서 및 시·군 공무원 등 207명이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상황은 없었으며, 사고방지를 위해 남원시 요원둔치 주차장을 통제함과 동시에 둔치주차장 내 차량 20대를 이동시켰고, 공원 탐방로 133개 노선 중 25개 노선(마이산, 선운산)은 통제에 들어갔다.

태풍 및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 협업기관(도-기상청-소방-경찰) 및 도, 시·군 실시간 카톡방을 운영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SMS 3회, 전광판 11개소, 자동음성

통보 830개소 등을 통해 호우시 행동요령을 홍보했고, 산사태, 급경사지, 둔치주차장 등 취약지역 27개소를 예찰했다.

기상청 기상정보에 따르면, 23일부터 24일 낮 15시 사이에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 태풍이 소멸되는 25일 오후에도 추가 강수의 가능성이 있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화된 상황으로,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호우 특보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는지 주변을 확인해 피해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해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4곳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9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 법 상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미 다수의 광역지

자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지만, 개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그 영향이 미미하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도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교육법률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교육법률과 법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립,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